

소나무허리노린재 발생소장 및 시기별 구과 피해율

Seasonal Occurrence of the Western Conifer Seed Bug, *Leptoglossus occidentalis* Heidemann from Cone of Korean White Pine and Cone Damage by Period

Gun-Hyung Kwon¹, Sun-Hee Kim¹ and Youngwoo Nam²

¹Gyeonggi-do Forestry Environment Research Center

²Division of Forest Insect Pests and Diseases,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소나무허리노린재는(*Leptoglossus occidentalis*)는 북미원산으로 2010년 경남 창원에서 국내 침입이 처음 확인되었다. 최근까지는 소나무 구과에서 피해에서 나타났으나 이로 인한 피해는 수목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이 적은 편이다. 그러나 2020년 경기도 가평군의 잣나무 구과에서 피해가 확인되었는데, 잣나무 구과는 산림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소득작물로, 이로 인한 피해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잣나무 구과에서 소나무허리노린재 발생소장 조사를 위해 경기도 가평군 6개 지역의 잣나무 상부에 타임랩스 카메라 (TLC2020, Brinno) 설치하고 영상분석을 통해 잣 구과에서 소나무허리노린재 발생소장을 조사한 결과, 잣 구과에서 2021년 6월 7일에 최초 관찰되기 시작하여 11월 7일까지 관찰되었으며, 2022년에는 5월 17일부터 10월 29일까지 관찰되었다. 시기별 구과 피해율 조사를 위해 잣나무 구과에 4월 초순에 망대를 사전에 설치하고 5월 중순부터 각 시기별로 소나무허리노린재를 15일 간격으로 집중시켜 가해토록 한 후 제거하여 가해 시기에 따른 종자 피해율을 조사한 결과 잣 구과가 주로 성숙하는 6-7월 경이 잣 종자피해율이 높았으며 7월 하순부터는 종자 피해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검색어: 소나무허리노린재, 잣 구과, 발생소장, 구과 피해율, 타임랩스카메라